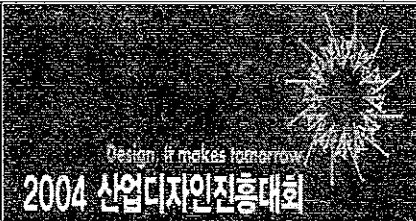


본 자료는 12월 25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	표준디자인과
		담당자	권오정 과장 송현주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5102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 인터넷 : www.mocie.go.kr			

디자인 산업 기초체력 다진다

- 제6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 개최 -

「디자인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육성방안」 발표

- 산업자원부는 12.24일(금) 15:00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된 제6회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 「디자인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육성방안」을 발표함
 - 이 자리에는 이희범 산자부장관,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 한국디자인진흥원 김철호 원장 등 정·재계, 산업계, 디자인 및 브랜드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함
 - 동 육성방안은 '03년 12월에 발표한 「참여정부 디자인 산업발전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 디자인 인력 및 전문회사는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토대이나 선진국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취약하여 이 분야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05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산업자원부는 밝힘
- 디자인 산업은 기업의 가치창출과 국가경쟁력의 최후 승부처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디자인 산업의 토대인 디자인 인력과 전문회사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임

- 현재 우리나라에는 연간 3만 6천명의 디자인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실무능력의 부족, 디자인 인력의 수급 불균형으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 맞춤형 인력배출이 부진하며,
- 디자인 전문회사는 1,000여개의 업체가 영업 중이나 연매출액 5억 미만 업체가 57%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의 영세업체가 난립하여 디자인 회사간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임

□ 디자인전문인력·전문회사 육성방안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실무 능력을 갖춘 창의적 디자이너 육성

-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점교류형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다학제적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시범실시하고, CDO의 대학출장 지원 및 재학생 현장실습 학점 인정제를 확대할 계획임
- 또한 디자인 교육 인증제 및 디자이너QC(Quality Control)제도의 운영을 통해 디자인 교육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 한국 디자인의 세계화 및 세계 디자인의 한국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기업 워크샵을 통한 디자이너 브랜드화, 차세대 디자인 리더 육성사업, BRICs 등 성장시장의 한국 디자인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임

② 디자인 전문회사의 경쟁력 제고

- 자본금 요건을 매출액 요건으로 전환하는 등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도를 개선하여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고

- 디자인전문회사 인력의 재교육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 디자인 회사와의 공동프로젝트 확대, 홍보지원 등을 통해 우수 디자인회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디자인 개발비 지급을 '정액방식' 일변도에서 '로열티방식'을 도입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 선정 제도, 정부 지원방식의 대형화 다양화를 통해 디자인 회사의 기업형 경영을 지원할 계획임

< 붙임 > 1. 디자인전문인력·전문회사 육성방안

디자인 전문인력 · 전문회사 육성방안

2004. 12. 24.

산 업 자 원 부

목 차

I. 추진배경	1
II. 디자인 인력 및 전문회사 현황	2
1. 디자인 전문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2
2. 디자인 전문회사의 현황 및 문제점	4
III. 비전과 발전전략	6
IV. 세부추진 방안	7
1.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디자이너 육성	7
가.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7
나. 디자인 교육의 내실화 및 특성화 유도	9
다. 한국 디자인의 세계화	10
2. 디자인 전문회사의 경쟁력 확보	12
가.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화·대형화 유도	12
나. 우수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강화	13
다. 디자인 회사의 기업형 경영 유도	15
V. 향후 추진 계획	17

I. 추진 배경

□ 「참여정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의 지속적 추진

- 2008년 G7 국가 수준의 디자인 선진국 도약을 목표('03. 12)
 - 국가 경쟁력의 최후 승부처인 디자인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하여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 산업 발전기획단」을 발족하여 발전전략의 5대 세부 과제 도출('04. 3 - 9월)
 - * 발전기획단(5개 분과) : ①디자인 산업의 창출·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잠재인력 활용, ②산업의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 ③디자인 산업의 국제화 및 동북아 협력기반 강화, ④지방의 디자인 혁신능력 제고, ⑤디자인 문화확산
- 「참여정부 발전전략」 및 기획단을 통해 발굴된 '과제'의 지속적 추진

□ '05년 역점 사업으로 「디자인 산업의 육성 및 잠재인력 활용」을 선정·추진

- 디자인 인력 및 전문회사는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 토대이나 선진국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취약한 상태
-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디자이너를 육성하고, 디자인 전문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부전략 수립 및 체계적 추진 필요

* 추진 경과

- 디자인 전문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04. 11.16)
- 정책개발을 위한 민간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운영 ('04.11-12)
- 디자인 교육·디자인회사의 운영실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설문조사 ('04.11.29 - 12.2)

II. 디자인 인력 및 전문회사 현황

1. 디자인 전문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생은 연간 3만 6천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디자인 관련 학과 설치 대학은 300여 개에 이릅니다

< 디자인 인력의 연간 배출현황 비교 >

미국	한국	일본	영국	이태리	중국
3만8천명	3만6천명	2만8천명	2만명	2만명	9천명

- 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장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디자인 교육기관 및 인력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 * '99년 후반 이후 청소년 선호 직업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배출인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04년 12월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유망직업으로 시각디자이너 선정
- 지속적인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고급 디자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IT 환경에 부응하는 멀티미디어 디자인 분야의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문제점

-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디자이너 양성 미흡
- 이론 중심의 디자인 교육으로 디자인 교육의 실제업무 기여도는 62%에 불과하며, 신입 디자이너의 경우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2년간의 추가 적응기간이 필요 (디자인 센서스, '02년)

- 실무 디자인 응용능력, 디자인 기획능력 등이 대학 디자인 교육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위해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 (kidp 설문조사, '04.12)

○ **전문인력 공급과 산업계 수요간의 괴리 존재**

- 산업계는 자동차·가구·가전 등 분야별로 특화된 디자이너를 요구하나, 대학은 시각·섬유·제품 디자인 등 **정형화된 인력**을 배출함에 따라 **취업률 저조**

* 디자인분야 취업률: 4년제 49.4%, 전문대 포함 65.8%(디자인센서스, '02년)

- 부문별로는 멀티미디어,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기반 디자인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공급은 이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

* 디자인 관련학과와 전공별 학생수

①시각(33%) ②섬유(13%) ③환경(11%) ④제품(10%)의 순서로 배출되고 있으며, 제품 및 멀티미디어 분야의 배출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음

- 디자인 교육기관의 급격한 증가로 대학교육기관간, 배출 인력간 **질적인 격차가 증대하고 있으며,**

- 교육기관별 산업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인력 배출**이 미흡
- 단순 미술 실기 위주의 교육으로 마케팅, 엔지니어링 등 **관련 분야와의 연계가 부족**

2. 디자인 전문회사의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디자인 산업의 규모는 영국의 1/7.5이나, 디자인 회사의 수는 1,000여개로 영국의 1/2 수준 (디자인센서스, '02)

< 국가별 디자인전문회사 현황 비교 >

구 분	한 국	영 국	일 본	미 국
디자인회사 수 (등록회사 수)	2,212개 (1,046개)	4,000개	2,640개	1,550개
디자인산업 규모	*약7조원	약53조원	-	-
매 출	5천2백20억원	14조1천7백29억원	1조6천2백50억원	-
종 사 자 수	9,750명	82,000명	13,232명	14,000명

주) 영국, 일본, 미국은 2000년도, 한국은 2002년도 기준임

자료) 한국: 통계청 전문디자인업 통계자료(*산업규모: 참여정부디자인산업 발전전략 2003년, 산자부)

일본: 일본 경제산업성 (특정서비스산업실태조사결과, 2002. 1)

영국: Design Industry Valuation Survey (The British Design Initiative)

미국: IDSA (2000)

< 연도별 디자인 전문회사 증가추세 >

(단위:개사)

구분	'95	'96	'97	'98	'99	'02	'03	'04
증가분	8	10	37	64	130	159	188	159

* 1997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급속한 양적 팽창으로 연매출 5억 미만 업체가 57%, 5명 미만의 회사가 전체의 52%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소규모의 영세성을 보이고 있음 (디자인센서스, '04.)

* 영국은 4.65억원 이상 업체가 전체 디자인회사의 70%를 차지하며, 직원 6인 이상의 업체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50명 이상 업체도 396개에 이릅니다

□ 문제점

○ 과당경쟁으로 인한 디자인산업 경쟁력 약화

- 디자인 회사간 과당경쟁으로 디자인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상품 경쟁력 약화와 디자인 투자 감소 초래
- 디자인 회사간 출혈경쟁은 디자인 가격의 덩핑으로 나타나 우수한 전문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
- * 전문회사의 프로젝트 계약시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42.6%)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디자인 센서스, 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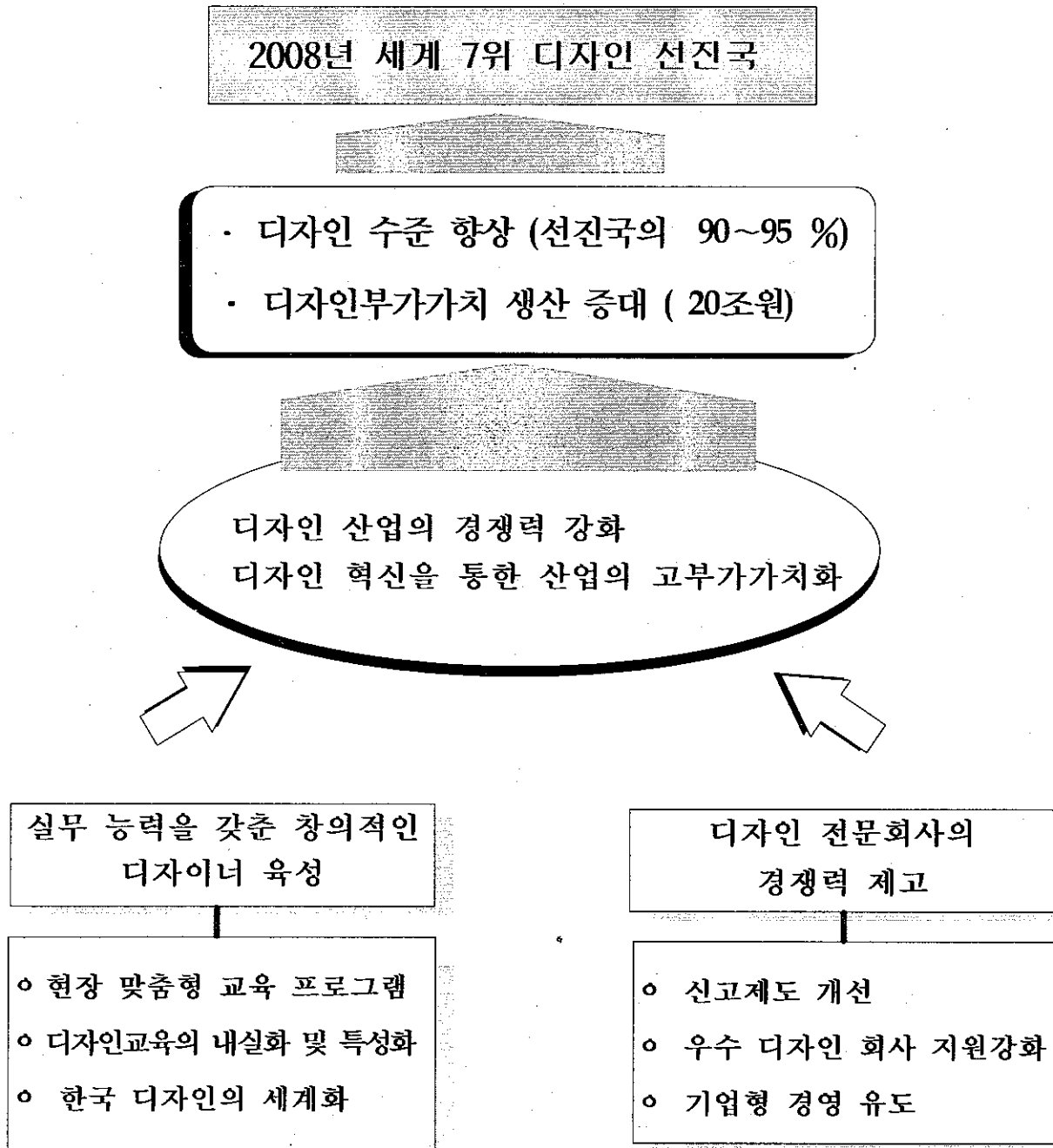
○ 잦은 이직과 신규 창업의 용이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 용이한 신규창업과 잦은 이직으로 디자인 회사의 경험 축적이 어려움
- 제품, 시각, 환경 등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지 않으며 백화점식 영업행태를 보임

○ 디자인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 WTO, FTA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해외 유명 디자인회사들의 진출이 예상되나, 국내 디자인 회사의 영세성으로 대응능력 부족
- * 현재 디자인 컨티눔(美), 텐저린(英) 등 디자인 회사가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연락 사무소를 설립 중

III. 비전과 발전전략



IV. 세부추진 방안

1.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디자이너 육성

| | | |---|-------------------| | 가 |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 |---|-------------------|

① '학점교류형 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 기업의 상품 개발 프로젝트를 디자인학과 및 공학 등 관련학문 전공학생으로 구성된 팀에서 수행토록 하고, 프로젝트 완료시 학점으로 인정 (다수 대학 참여시 대학간 학점교류 인정)
 - 디자인과 및 관련학문(경영학, 마케팅, 인문학, 엔지니어링 등) 교수가 팀 티칭(team teaching) 형태로 강의 및 프로젝트를 진행
- * '05년 시범실시 (프로젝트팀당 5-600만원 지원)
- 디자인 기획능력과 디자인 실무응용능력을 증진시키고 디자인 및 관련 분야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
- 대기업과 R&D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미래상품 및 신상품 개발 도구(tool)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 지방은 지역특화산업 관련기업과 연계하여 추진

② 다학제형 교육과정 마련 및 시범 실시

- 이론 위주의 디자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지향적인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다학제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유도
 - 창의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마케팅, 공학 등 디자인 관련 분야의 연계 커리큘럼 개발

* 다학제 교육과정 마련 및 교재 개발을 위한 용역 추진 ('05년)

- 디자인 전공학생의 수준에 맞는 **관련학문 강좌**를 마련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토록 유도
- **지역별 특화산업 관련 과목**을 교과과정 내에 포함시켜 지역산업과 연계된 **대학 특성화 방안**으로 활용
- * 울산지역 대학 - 자동차공학, 대구지역 대학 - 섬유공학 등

[3] CDO 출강 지원 확대

- CDO(Chief Design Officer)의 현장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산학연계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디자인 책임임원이 대학에 출강할 경우 강의비용 (강좌당 800만원) 지원
- ('04) 경희대 등 10개 강좌 → ('05년) 15 - 20개 강좌로 확대

[4] 재학생 현장실습 학점인정제 시범 실시 및 지속적 확대

-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디자인 관련 학과 재학생의 **디자인 회사 현장실습 실시**
- 기업은 인턴기간 중 연수자를 **프로젝트에 의무적으로 참여**
- 연수자는 연수 후 **프로젝트 참가 레포트** 또는 작품을 학교에 제출할 경우 학점 부여
- * '04년 겨울학기부터 3-4개 대학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
(업체당 평균 3 - 4천만원 지원, 3-5개월 기준)

나 디자인 교육의 내실화 및 특성화 유도

① 디자인 교육 인증제 실시

- 산업계 수요와 국제 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디자인 교육 과정 개편
 - 각계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대학의 현장형 교육, 특성화, 전문화 등을 주요 지표로 하는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
- 일반 교육과정과 구별되는 디자인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의 대학 평가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사업)」 및 「대학종합평가인증제」에 동 프로그램의 평가지표를 적극 활용 (교육부와 협의 추진)
 -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교육부) : '04~'08년 실시
 - * 대학종합평가인증제(한국대학교육협의회) : '94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

② 디자이너 QC(Quality Control)제도 운영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는 디자이너 배출을 위해 디자이너 인증제 실시
 - 디자이너의 창의력, 기획력, 상품개발 능력 등 종합적인 디자인 능력을 평가 (이론·실기시험)
 - * 평가지표: 디지털 디자인기술, 디자인실무능력, 디자인 기획능력, 외국어 능력, 기타 관련 학문 습득 정도
- 디자인 대학 졸업자를 대상(2년제, 4년제)으로 실시
 - 평가지표 개발시 산업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자격인증시 취업과 연계되도록 운영
 - * 일본: 문부성에서 컴퓨터 그래픽 자격인증제(1, 2, 3급)를 실시하고 있으며, 1·2급 인증자는 취업시 우선 채용 관행이 정착

다 한국 디자인의 세계화

□ 해외 유명기업 워크샵 참여를 통한 디자이너 브랜드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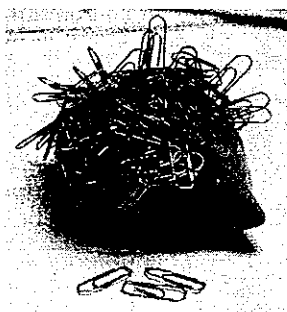
- 국내 디자이너를 해외 유명기업의 워크샵에 참여시켜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프로젝트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선진기업의 명성에 힘입어 국제적인 스타 디자이너로 성장 가능하며, 한국 디자이너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에 기여

- *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 디자이너인 “필립 스타크”은 이태리 알레시社의 상품개발에 참여하면서 국제적인 스타로 성장

- 「글로벌 디자이너 양성사업」을 통해 '04년 시범시행 중이며, 이태리의 알레시, 마지스 및 미국의 모토롤라에서 협력을 제의

- * 알레시社는 최근 영 디자이너와의 협력을 통해 디자인 상품을 개발(8개) 하였으며, 그 중 한국인 작품(도치)을 선정



한국의 김영정씨가 개발한 「도치」
사무용품으로 알레시社 생산·판매
(’04년 로열티 5,000만원 수수)

□ 차세대 디자인 리더 육성사업의 지속적 실시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디자이너를 육성하기 위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디자이너를 선발하여 해외 연수 및 해외 유명 디자인 전시회 출품 지원

- 신세대 디자이너(Rookie Designer)와 선도 디자이너(Master Designer)로 구분하여 연간 총 20여명 선발 ('04년 7억원)

- 1기 : 이돈태(텐저린(英) 부사장), 박형민(경성대 재학생) 등 6명 선발

- 해외 활동 중인 디자이너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디자이너 자체를 브랜드화 하여 세계적 스타 디자이너로 집중 육성

- 산업 디자인 전 분야에 걸쳐 문호를 개방하고, 최장 3회 연속지원을 통해 실효성 제고

□ 한국 디자인이 트렌드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조성

- 한류열풍을 한국 디자인의 세계화 확산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BRICs 등 성장시장의 디자인 리더(교수 및 학생)의 한국 디자인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

- 국내 대학의 디자인 분야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협력 지원

- 해당 국가의 디자인 리더 파악 및 교류, 국내외 수요조사를 통한 추진 기반 마련 ('05년)

- 국내 참여기관과 해외 참여 인력을 선정하여 '06년부터 실시

- 연수 프로그램(안)

- 연수코스 : 소양교육(2개월) → 연수(6개월)

- 학위코스 : 소양교육(2개월) → 학위과정

2. 디자인 전문회사의 경쟁력 제고

가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화·대형화 유도

□ 신고요건 개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구분	현행	변경(안)
자본금(매출액)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매출액 2억원 이상
전문인력 보유	분야 구분없이 3인이상	분야별 3인 이상
사후 관리	없음	부적격 업체 발견시 신고취소 등

* 디자인회사는 상법상 요건만 갖추면 영업이 가능하며, 산업디자인진흥법상의 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은 산자부의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참여 조건임

○ 자본금 요건을 매출액 요건으로 전환

- 디자인 전문회사의 난립 방지를 위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에서 매출액 2억원 이상(전년도 기준)으로 신고요건 변경

<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요건 변천과정 >

구분	92년	93년	97년 - 현재
전문인력	3인 이상	3인 이상	3인 이상
매출액 / 자본금	매출액 1억원이상	매출액 5,000만원이상	자본금 5,000만원이상
법적근거	상공부 고시	상공부 고시	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 분야별 전문인력(3인) 확보 요건을 신설하여 전문회사의 특성화 및 전문화 유도

* 제품, 시각, 포장, 환경, 종합디자인분야로 구분하여 전문회사 신고 접수

○ 부적격 업체의 신고 취소규정 신설

- 신고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부적격업체가 발견될 경우, 등록 취소 및 일정 기간 정책과제 참여 제한

나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강화

1

디자인 전문회사 인력 재교육 지원

-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산업·상품·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디자인회사 인력 재교육 지원

* GD상 및 벤처디자인상 수상기업 등 우수 디자인 회사 우대

-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와 함께 생겨나는 신요소 기술(가공 기술, 설계기술, 소재기술, 인터페이스기술 등) 및 정보 제공

- 선진국과 비교하여 기술 수준이 낮은 분야, 현직 디자이너가 희망하는 디자인 기술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 제공

- 해외 우수업체, 우수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선진 디자인 기술 교육

< 선진국과의 디자인기술 비교 >

디자인 기술분류		디자인 기여도의 격차(GAP)				선도 국가
		25%	50%	75%	100%	
디자인 기초 기술	색 채					일본, 유럽, 미국
	소 재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트렌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미국
	인간공학					미국, 일본
	UI & GUI					미국, 독일, 영국
	인터랙션					미국, 일본
	캐릭터디자인					미국, 일본, 영국

(산업연구원, 03년)

②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 해외 디자인 전시회 참가 지원

-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하고, 우수 디자인회사의 전시회 참여를 지원

- * 「디자인 코리아 2004 - 베이징」('04, 11. 24~27, 베이징 중화세기단)
 - 디자인 전문회사 30업체 참여 (2억원 지원)
 - 6만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으며, 전문회사별 비즈니스 상담이 계약 체결로 이어지고 있음 (써드아이, 디자인 모을, 넥센타이어)

○ 해외 디자인 회사와의 공동 프로젝트 확대

- 국가별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해외 유명 디자인 전문가 또는 디자인 전문회사와의 연계 강화
- 세계 일류상품 · 혁신상품 디자인 개발시 국내 디자인 회사와 해외 디자인 회사간 공동 프로젝트 확대
- 「디자인모을」(韓) + 「Bolton Associates」(英) → 씨큐리콧의 "손목시계형 디지털 생활무전기" 디자인 개발
- 「서울디자인」(韓) + 「ISIS」(英) → 아큐브코리아의 "DVD 음향전동 Chair" 디자인 개발

③ 디자인 전문회사의 홍보강화

- 언론사와 연계하여 디자인 회사의 성공사례를 홍보하여 디자인 회사의 브랜드화 지원
- 성공사례 및 실적을 담은 우수 디자인 회사의 목록 (Directory)을 마련하여 on/off 라인상으로 제공 (산자부,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등 홈페이지에 등록)

다 디자인 회사의 기업형 경영 유도

1 디자인 개발비의 로열티 지급 방식 도입

- 디자인 개발비 지급을 「정액방식」 일변도에서 성과에 따른 「로열티 방식」을 도입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디자인 회사의 기업형 경영을 지원

< 디자인 기술개발 흐름도 >

구분	현행 방식(정액방식)	로열티 방식
디자인 개발 의뢰	제조업체 → 디자인 회사	제조업체 → 디자인 회사
디자인 개발비	정부 2/3, 업체 1/3 부담	정부 2/3 부담
디자인 개발 완료	디자인 개발 제품	디자인 개발 제품
개발후 환수금	정부 지원금의 20-40% (업체 부담)	정부 지원금의 20-40% (디자인 회사 부담)
디자인 회사의 수입	디자인 개발비	디자인 개발 후 5년간 매출액의 일정 부분

2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top 100) 선정

- 디자인 개발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풍토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출액, 인력구성 등 **경영능력**과 우수개발 사례 등 **디자인 개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및 **서식(survey form)**을 개발하고,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회사에 대해 **순위를 결정**
- **유력 언론**을 통해 **평가 결과 발표**

* 영국은 19년째 Design Week 紙에서 매년 서면조사를 통해 매출액 상위 100대 디자인회사(top 100 Design Groups) 발표

③ 정부 지원방식의 대형화 및 다양화 추진

- 디자인 개발시 소액·다수·단년도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디자인 개발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최장 3년의 장기 프로젝트 도입 ('03년 200억원, 1,000여개 과제, 과제당 평균 2,000만원)
 - 세계일류상품, 성장동력산업 등 파급효과가 큰 과제에 대한 디자인 개발 지원의 연차적 확대
-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고품격 디자인 개발 지원
 -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지원은 디자인 회사간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발
- * 일류상품에 대해 시행하고, 혁신상품 기술개발에도 점진적으로 도입
- * 개선된 방식에 따른 지원 절차
 - ① 디자인 지원대상 업체의 선정 ② 선정업체 공고 ③ 디자인 개발에 참여할 디자인 전문회사의 신청 ④ 공개경쟁을 통한 선발
- 디자인 샵(Shop) 설치 및 운영
 - 전문회사의 우수 디자인상품 및 자체개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문 디자인샵을 한국 디자인 센터(KDC) 내에 설치
 - 디자인 전문회사의 프리마켓 및 상설 홍보 전시관으로 운영하여 디자인 회사의 자생기반 구축 지원

V. 향후 추진계획

□ 「디자인전문회사·전문인력 육성방안」 세부 실행과제의 수립·추진

○ 6개 과제별 Working Group 구성·운영 ('05. 3)

- 구성 : 산·학·연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
- 기능 : 구체적 전략 수립, 새로운 정책과제의 발굴,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
- 6개 과제 : 현장 맞춤형 교육, 디자인 교육의 내실화, 한국 디자인의 세계화, 신고제도 개선, 우수 디자인 회사 지원, 디자인 회사의 기업형 경영 등

□ 범국가적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산자부 차관을 협의회장으로 하는 『디자인 산업발전 협의회』 구성·운영('05.4)

- 구성 : 산·학·연·관 디자인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교육부·문광부 등 디자인 관련 부처 참여
- 기능
 - 디자인 산업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디자인 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 과제 논의
 - 디자인을 통한 국정과제(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국가균형발전 등)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하여 추진